

주일 낮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 오전 9:00 |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 **경배찬송** 다함께

21. 다 찬양하여라
문들어 머리들여라(ccm)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기도 | **전정옥집사** | **김한수장로**

성경봉독 인도자

누가복음 3:15-17, 21-22

찬양 | 다시 일어나 **교사중창단**

II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호산나찬양대**

설교 **김동오목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 다함께

봉헌 다함께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목회기도 설교자

■ **결단의찬양** 다함께

하나님의 부르심(ccm)

■ **축도** 설교자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다음기도 / I. 송수진집사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II. 박병기장로
- 1월 19일 / 사 62:1-5, 시36:5-10, 고전 12:1-11, 요 2:1-11

주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2:00 **직원헌신예배** 인도 / 신재희장로

경배와찬양 (인도) **민음으로찬양단**

기도 **김정희권사**

찬양 315.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신임직분자**

성경봉독 사도행전 11:19-26 **김은숙집사**

설교 "예수님 안에서 타인을 빛나게 하는 제자" **김민철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 기도 / 구역헌신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인도 / 조경환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도 **조미희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1:6-8 **인도자**

설교 "하늘의 창조" **조경환목사**

기도 **다함께**

찬송 79.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함께**

축도 **설교자**

□ 다음 기도 / 김창배안수집사

새벽기도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13일	요한복음 4:27-42	영혼 추수에 이르는 하나님의 때
· 화	14일	요한복음 4:43-54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 수	15일	요한복음 5:1-18	안식일에도 이어지는 사랑의 치유사역
· 목	16일	요한복음 5:19-29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복
· 금	17일	요한복음 5:30-38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 토	18일	요한복음 5:39-47	성경과 모세가 증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 일	19일	요한복음 6:1-21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 새벽기도회 묵상 말씀은 Q.T 교재 <성령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교 요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이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한은 당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시면 회개의 세례가 필요없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말을 뚜렷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21-22).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하는데 주께서 내게로 오십니까?'(마태3:14) 말합니다. 요한 역시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마태3:15)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쉽게 말하면 의는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 받을 사람 상 받고, 벌 받을 사람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불의를 바로 잡아 되돌려놓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세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두 번째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죄많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대표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대표,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여주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실은 그 대표이신 예수님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의, 그 중에서 두 번째 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죄없으신 예수님이 당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21-22) 하늘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편 2:7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반영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뿐이었다면 죄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각자의 죄로 심판 받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삶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 직원헌신예배 및 직분자 세미나 : 1월 12일 주일오후찬양예배
 - 강사 : 김민철목사(연덕교회)
 - 찬양 : 신입집사 및 신입 임직후보자, 주일 2부예배 직후, 대예배실
 - 세미나 : 오후 3:00-4:20 / 공감 대화법
- 금요저녁기도회 : 1월 10일(금) 오후 8시, 대예배실(3층)
- 일본단기선교(22명) : 1월 11일(토) - 17일(금), 오사카 교토 현지 교회
 - 후원 : 김춘자 신학회 이순옥 허대순 / 일일차집(2,173,000원)
- 제1여전도회 월례회 모임 : 1월 12일(주일) 점심식사 후, 자모실
- 강원지방 임직후보자교육 : 1월 18일(토) 오전 9시 ~ , 태장성결교회
 - 임직후보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의무교육과정.
 - 안내 및 식사 봉사 필요
- 청년교회 수련회 : 1월 20일(월) - 22일(수), 한라대학교
 - 수련회 찬조 : 새마을금고 9002-1842-3648-1 태장성결교회
-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홈택스 이용
 - 교회 이용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찾아가길 날짜 - 조정환목사께
- 강단화분 봉헌 : 김동오 설수정 - 어머니 추모 기념
- 떡 대접 : 손수옥권사 유족 - 어머니 장례 감사

목회계획

1.12-18	1.19-25	1.26-2.1	2.2-8
18. 지, 심리부회의 (태장)	19. 구역헌신예배 21. D.P.A 개강 및 OT (하늘명안) 23. 교역자회의(귀운) 24. 금요저녁기도회 25. 지, 남전연합 정기총회(원주중앙)	1.27 강원칼넷 실행위 (춘천)	2. 교사헌신예배 7. 지, 심리부 사무총회 검열

봉사위원

구 분	1.12	1.19	1.26	2.2
방송	오전 조승현 오후 임윤구	임윤구 김현영	조승현 박태근	임윤구 조승현
차량	1호 이철성	강대봉	강병린	김문배
운행	2호 신재희 김명운	수요	교역자	
주 방	22.31.36	24.32.44	33.41.42	34.43.46
오후 돌봄	최명숙 유혜순	김재욱 강은숙	이준득 장영희	김종순 김춘자
청소(화장실)	7여전	8여전	2남전	3여전
봉 헌	1부: 금은정	2부: 문제성 정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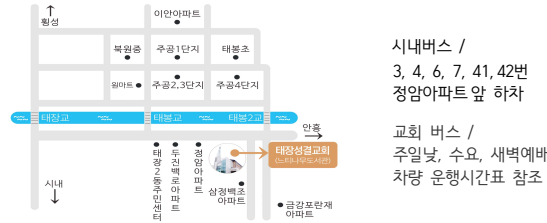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2.4금 오후 8: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수	수 오후 8:20
주일유아예배	오전 11:0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어린이예배	오전 10:5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청소년예배	오전 1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 김동오(010-7147-6762)
 명예목사 : 채수환
 부담임목사 : 조정환(010-5282-8999)
 청소년간사 : 강호길
 선교사 : 황노혜미야 임에스더 (미국)
 박에덴 베들레헴 (미국)
 최용락 이민숙 (미국)
 박종민 이인덕 (미국)
 지영환 김희수 (미국)
 최경민 김은진 (미국)
 협력교회 : 가평터사랑 귀은 서일주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 시무장로 :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 박병기
 명예장로 : 황호윤 김성제
 찬양지휘 : 고재석
 반 주 : 원신희 장영희 변찬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최은선
 협력사역 : 강원교청넷 강원칼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마음의 눈을 뜨니

구 상

이제사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무심히 보아 오던 마당의 나무,
넘보듯 스치던 잔디의 풀,
아니 발길에 차이는 조약돌 하나까지
한량없는 감동과 감격을 자아낸다.

저들은 저마다 나를 마주 받기며
티없는 미소를 보내기도 하고
신령한 밀어를 속삭이기도 하고
손을 흔들며 함성을 지르기도 한다.

한편, 한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새삼 소중하고 더없이 미쁜 것은
그 은혜로움을 일일이 쳐들 바 없지만
저들의 일손과 땀과 그 정성으로
나의 목숨부터가 부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나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의 그 시원(始原)의 빛에 눈을 뜬 나,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요,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원 속에서 나와 저들의
그 완성될 모습을 떠올리던 황홀해진다.

26318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태장동)

☎ 033-742-6762, 070-5168-1770 (담목)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